

RFID 시스템 도입효과 분석도구 개발

산업자원부는 3월28일 한국유통물류진흥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무선인식(RFID) 시스템의 도입비용에 대한 효과를 사전에 비교할 수 있는 투자대비수익률(ROI) 분석도구를 개발했다.

산자부는 사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관련정보를 판독하고 처리하는 기술인 RFID를 바코드에 이은 차세대 자동인식 기술로 주목하고 있지만 비용에 비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어 분석도구를 만들었다.

산자부는 개발한 ROI 분석도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달 동안 주요 유통 및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개해 실증시험을 거친 뒤 5월부터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7/03/29>